

< 총평 >

올해 시험은 국가직 - 지방직 -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다 평이하네요. 예전 5지일 때 서울시의 잔혹함은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독해 : 지문의 길이가 짧아도 내용이 난해해서 고민이 많던 작년의 독해 유형도 올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독해화된 어휘 문제의 수가 증가했으니 역시 영어는 어휘 준비로 시작해서 어휘로 마무리해야 할 거 같습니다.

어휘 : 상대적으로 답을 찾기는 쉬웠지만 그럼에도 insurgence, paucity, pernicious, delirious, rebellious, prodigal은 난이도가 낮지 않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어휘들입니다.

문법 : 이 역시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빈칸을 넣은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방직처럼 옳은 것을 묻는 형태였다면 마찬가지로 무척 많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생활영어 : 생활영어를 문법화한 것은 자주 보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생활영어다운 생활영어는 나오지 않은 게 되겠군요. 또 그나마 1문제구요.

올해 대략적인 9급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 해설 >

1. 스펠링을 두 개(rhubarb, rubarb)로 써도 받아들일만한 대안 (alternative)이 됨.
2. exaggerated the tales of cruelty(그 잔인성을 과장했다)에서 힌트
3. 친구 Joe를 통해 fatal knowledge에 대한 예문을 들고 있음.
4. 아래에 lethal for both the defender and the attacker 에서 힌트
5. obsolete (쓸모 없는) discard (버리다)
6. rebellious = re(= again) + bel(= war) = 호전적인 = disobedient
7. prodigal (풍요로운,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 lavish

8. resurgence(부활, 소생) = comeback

9. the number of 복수명사 + 단수동사 / a number of 복수명사 + 복수동사

10. get 목 p.p. (목적어인 머리가 드라이어에 '붙게 된' 것이므로 - 수동관계)

11. 앞의 ways that절과 병치하는 that절이 필요

12. 1, 2번 보기는 뒤에 완전한 구조를 취할 수 없는 관계대명사임. 3번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수 선행사와 뒤의 명사간에 소유관계가 필요. 하지만 대명사를 뒤 단어로 둘 수는 없음. 결국 4번이 답이고, it ~ that 강조 용법

13. live together <--> solitary (외로운)

14. (ㄹ) rosa가 버스에 탑승 --> (ㄴ) 당시의 법률은 흑인이 백인 자리 못 앉음 --> (ㄷ) 자리 옮기기를 거부함 --> (ㄱ) 체포되어 사회 문제가 됨

15. touching (감동적인) : 앞 사람이 뒷 사람의 커피값을 내주는 이야기 + 학교 급식비 대납

16. 달의 형태에 대한 내용 - 빨리 돌면 돌수록 중간 부분이 돌출되고 극지방이 평평해짐 but 지구보다 천천히 돌게 되므로 더 원형에 가까움

17. but 뒤에 나온 substantial (상당한)의 반의어 찾기 - imperceptible (미미한)

18. commit (범죄 등을 저지르다) - try (재판에 부치다)

19. 100년 전의 이론임에도 아직도 그 유효성이 인정됨 - 시간을 withstand(저항하다)한 것이고 + 전문가들이 flaw(결점)을 찾으려고 함에도

20. offers many programs to children and adults living in the building(많은 프로그램을 건물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성인들에게 제공한다)에서 힌트